경공술(輕空術)의 비법, 과식

(막6:45-56)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새다로 가게 하시고
46.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47.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뭍에 계시다가
48.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51.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53.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54.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56.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경공술(輕空術)의 비법, 과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과식, 음식을 도가 지나치도록 먹는 것, 이것이 바로 경공술의 비법이라는 뜻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 1년 동안 머물 때였습니다.
영화를 보러가게 되었는데, 제목이 '와호장룡'이라고 하는 중국영화였습니다.
도가적인 철학을 배경으로 한 무협영화인데,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무협영화라기에는 나름대로 제법 신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편에 도가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깔아놓고 스토리를 전개시켜나가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보는 미국사람들이 서양적인 합리성이나 과학을 발전시킨 삶을 대하는 입장과는 다른 동양적인 신비로운 색채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미국사람들이 그렇게 기가 죽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주관적이지마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중에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집안에서 남자주인공과 상대 여자가 싸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여자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집밖으로 나오면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수면을 발로 탁탁 튀기면서 가라앉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도달한 곳이 파~란 잎이 나있는 대나무 숲이에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영상이 새파란 게 그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는 대나무 위에 서서 둘이서 무술을 겨루는 겁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 뻥이겠지만…
어쨌든 설득력 있게 와 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공술(輕空術)입니다.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물 위를 뛰어가기도 하고, 대나무 같이 가는 가지 위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가지에 따라서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거기서 주인공은 한 손은 뒷짐을 지고, 하얀 두루마기 같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칼을 들면서…
아, 멋있어요.
저같이 몸이 뚱뚱하고 무거운 사람은 경공술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경공술이 신앙에 필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모습은 반드시 경공술을 익힌 자로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모습을 띠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경공술은 필수다.
바다 위를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
바다 위를 배 타고 가는 것, 이건 촌스러운 일이라 이겁니다.
신앙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다, 이건 아예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특징적인 것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밤 4경, 새벽 3시를 말하지요, 해가 뜨기 전이니까 제일 깜깜할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절에 무슨 오징어잡이 배처럼 조명 등이 있었을 리도 없을 것이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바람에 거슬러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48절에 보면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랬다가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다가오실 때는 사실은 못 보았다가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유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유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spirit 영입니다, 영.
ghost라기보다는 spirit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겠어요.
전부다 놀라서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가려고 하신 거지만,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일부러 드러내보여 주신 겁니다.
그 어두운 밤에 멀리서 걸어오시는 동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배 위에서 배를 어거하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동안에 배 끝으로 와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걸 못 보고.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가 배 타고 갈 때는 분명히 뭍에 남아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배 위에 계십니까?' 하고 그들이 기이히 여겼더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

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의 끝머리에서 올라오지 않으시고 배 끝머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왔어요.
마치 배를 추월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보인 뒤에, 그리고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이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가까이 온 천국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뭍에서부터 출발해서 밤4경까지 대여섯 시간 이상 바람을 거스르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다에 빠지는 것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경공술 중에 일위도강(一葦渡江)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마대사가 갈대잎사귀를 발로 딛고 강을 건넜다, 경공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경공술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다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일엽편주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새카맣고 등대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진짜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다시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같은 맥락으로, 가까이 온 천국이 핵심에 서있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시크릿 가든',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하면 광야에 숨겨져 있다.
왜 광야에 시크릿 가든이 숨겨져 있습니까?
광야는 삶이 죽은 곳이기 때문에.
왜 삶이 죽어야만 합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이 다 하나님께만 쏠리기 위해서는 삶이 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쳐 버립니다.
내 자식보다, 내 가족보다, 내 직장보다, 내 애인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 현장에 뛰어 들어가서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miss해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잡고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mistake를 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삶의 현장에서 떼어내신 이유는, 삶이 죽은 곳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데에 있어요, 다 하나님께 쏟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miss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아예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지고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과 대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삶의 현장이 아닌 곳, 이 세상의 경계 바깥에 있는 곳, 그 천국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그 천국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삶의 현장에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기운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먹은 사람이 이제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진다고 할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경공술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먹은 사람, 하나님아버지를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경공술이고, 다시 말해 세상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천국을 miss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삶이 죽은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숨겨져 있는 시크릿가든을 만나고 그 시크릿가든 에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라면, 천국을 먹은 자라면, 천국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42절 말씀 끝에 '다 배불리 먹고…' 과식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천국을 과식한 자들은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
과식하면 몸이 무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과식하면 과식할수록, 천국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바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세상바다에 빠지는 것을 알면 빠지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알겠지요.
지난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손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몇 개월 되었나 본데, 설교 때마다 손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목사님께서 그 손자가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몇 주 못 오면 그 아이를 보러 찾아가십니다.
그 손자를 보면 너무너무 예쁘지요?
누구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지 않습니까? 누가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무엇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빠졌느냐, 빠지지 않았느냐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기뻐집니까?
통장에 돈이 있어서 안심이 됩니까?
이게 빠진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애인 때문에 기쁘지요? 이건 빠진 겁니다.
골프 치면서 기쁘지요, 재미있어 죽겠지요? 이거 빠진 겁니다.
기쁘고 재미있으면 빠진 것이고, 기쁘고 재밌는 일이 잘못 될 때에 걱정이 되고 슬프고 안타깝고 우울해집니까? 빠진 겁니다.
이 세상의 일 때문에 기뻐해도 빠지는 것이고, 이 세상일 때문에 걱정을 해도 빠지는 겁니다.

걱정을 해도 기뻐해도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애인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바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과식하면 된다는 얘깁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문제는 끝장이 나야 됩니다.
삶에 들어가기 전, 삶의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직장으로 가기 전에,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노릇, 자식노릇 하기 전에, 친구 만나기 전에, 애인 만나기 전에, 기쁨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는 끝장이 나야 됩니다.
가까이 온 천국을 miss하지 말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miss해서 지나치지 말고, 그곳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끝나야 돼요, 무조건 끝나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돈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대로 움직였다가는 세상에 깊이깊이 빠져 들어가고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 돈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 붙잡고 죽고,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걱정 대신에 천국으로 채워서 완전히 돈과 상관없이 천국과 하나님아버지 때문에 기쁜 상황이 주어질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기쁨의 문제를 끝내라는 겁니다, 행복의 문제를 끝내라는 겁니다.
저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아버지와 천국을 miss해서 어떤 여자를 take한 겁니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아버지를 지나치면 불신앙입니다.

행복은 결혼을 잘해서, 취직을 잘해서, 인생의 비전을 성취해서, 목회가 잘 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목회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행복의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다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는 만큼 그 두려움으로 내 자식에게 빠질 것을 두려워하고, 사업에 빠질 걸 두려워해라, 내 배우자에게 빠질 걸 두려워해라!
바다에 빠져 죽는 것처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너무 예뻐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고 그게 나를 빠뜨려 죽이는 바다입니다.
애인이 너무 예뻐요? 그게 나를 빠뜨려 죽이는 바다입니다.
물귀신이에요, 나를 잡아끄는 물귀신.
제일 두려워할 것들이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들, 내가 예뻐하는 것들,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밤 4경 제일 어두울 때에 폭풍을 만나서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한 번에 뒤덮을 만큼 큰 쓰나미가 닥쳐도 바람이 들어간 공 하나는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절대 가라앉히지 못해요.
이 나라의 물가가 요동치고 난리가 나도, 만에 하나 전쟁이 나도 나를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공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안에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 세상에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spirit이 아닌가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바람이에요, 바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머금게 될 때, 일본열도 전체를 다 뒤덮고 대륙까지 넘칠 수 있는 쓰나미가 와도, 아니 노아 때의 홍수가 닥쳐도, 내가 천국의 바람 되시고 영 되시는 하나님아버지로 마음이 배불러 있을 때 절대 나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절대 나를 우울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미 그렇게 기쁨과 행복의 문제를 끝낸 뒤에 행복하면서 애인을 만나세요!
애인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뻐하려 하지 말고, 행복하면서 애인을 만나세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53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행복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오직 천국의 바람으로 가득 찬 마음만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족이건 이웃이건 직장동료건 모든 사람들을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 그들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떠있어야만…

자, 어떡하면 영적인 경공술을 익힙니까?
어떡하면 저렇게 예쁜 내 자식에게 빠지지 않습니까?
어떡하면 저렇게 좋은 돈에 빠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사막으로 나가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시크릿가든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됩니다.
많이 먹으세요, 과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 과식하면 과식할수록, 천국으로 과식하면 할수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과식할수록 몸이 가벼워져서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빠지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께서 가져오신 가까이 온 천국을 성령님을 통하여 맛을 느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많이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셔서, 절대로 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